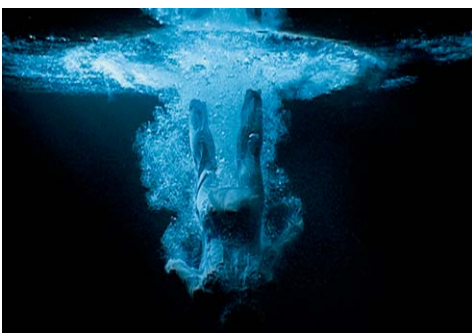




###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찾은 비디오아티스트 '빌 비올라'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본질 그 자체다. 윤회와 순간을 비디오아트(Video-art) 영상 언어로 작업해온 빌 비올라(Bill Viola, 57)가 한국을 찾았다. 백남준(1932-2006)의 제자, 1970년대 비디오아트 1세대로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예술로 승화한 시대의 중인이자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신관)는 '변형(Transfiguration)'을 주제로 7월 31일까지 개인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해변 없는 바다'를 10월 26일까지 특별 상영한다. 빌 비올라는 6월 30일 백남준의 유분이 안치된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명진) 대법전(茶寮軒)에서 주지 스님과 대담(茶談)을 나누고 후일영무에 안치된 백남준의 영정에 헌화했다. 그중 대담 '선(禪)과 비디오아트' 문답을 소개한다.



## '禪' 과 '영상예술' 의 만남

BV: 기독교와 불교는 숫자 '6'에 대한 해석이 다르던데요?

명진 스님: 탐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지요. 불교의 육근·육경(眼·耳·鼻·舌·身·意)은 탐욕의 개인적 주관에서 비롯된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기독교는 숫자 '6'을 악마의 의미로 지니지만 바른 해석은 탐욕심에서 비롯된 인식으로 해석해야겠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쉬는 의미가 바로 '7'입니다.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극복한 상태를 불교는 최고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6식의 경계를 넘어서 제7식의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반야의 지혜며 불교 수행입니다. 선(禪)의 궁극 목적은 바로 욕망의 비움을 통해 반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BV: 강하고 아름다운 필체인데요. '단지불회(但知不會)' 의미는 무엇인지요?

명진 스님: 소크라테스가 제자의 물음에 답하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는 사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르

는 사건입니다. '오직 아는가 알지 못한 줄을(但知不會)' 소크라테스의 나의 자신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Only one thing I know, I don't know myself' 라고 하지요.

BV: 그리스 아폴로신전에서 본 '너 자신을 알라'와 통하는군요.

명진 스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의 선은 사실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있지요. 끝없는 물음으로 얻는 지혜가 바로 선수행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분별심 없는 본래면목입니다.

BV: 물음의 해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닫는 것이군요.

명진 스님: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시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음을 부정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모음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부동하여 지속될 때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그 때 부처님은 별을 본 것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모름이란 허공과 같습니다. 이미 모르는 그 자리에

는 분별이 없습니다. 모름의 그 세계를 화가는 미술로 표현합니다. 빌 비올라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 비디오아트를 통해 표현하지요.

BV: 2년 전에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작가로서 현대 시대는 수행이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TV리모콘을 찾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더니 "나도 어디 가면 텔레비전부터 켜다"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 있는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텔레비전을 켜고 그 별레를 모아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몰랐습니다. 아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방에 백 명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백 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 한 명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백 명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달라이 라마가 답하길 "부처님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짓게 될 악업을 차단하고자 후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폭력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진 스님: 폭력은 때에 따라 필요 합니다.

BV: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왜

폭력을 행해야 하나?

명진 스님: 폭력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풀 한포기 꺾는 것도 풀에 대한 폭력입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배려 없는 행위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이 절대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BV: 근래에 티베트와 중국의 폭력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스님: 티베트가 중국 중원을 침략해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치 않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BV: 티베트는 현재 어렵지만 달라이 라마 사상은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노와 폭력의 관계는 조절 가능한지 복잡합니다.

명진 스님: 자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연민을 지닐 뿐 분노의 화는 없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근원을 물어 들어가 보세요. 화의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불거품처럼 말이죠. 화를 내는 것과 보리심은 틀리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며 예술가의 고된일 것입니다.

### 프레임에 담아낸 '삶과 죽음의 경계'

한 사회와 시대를 지배하는 인물과 가치가 지닌 복잡 다양한 일기는 불교의 인드라망으로 정의된다. 빈 컵이여 야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참선 수행을 통해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빌 비올라. 그는 1970년대 대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방문한 명상센터에

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다. 존 케이지(John Cage, 음악가)와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시인), 앨런 왓츠(Alan Watts, 명상가)는 당시 불교신도였다. 뉴욕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시라쿠스 대학에서 1972년에 전시 준비중인 백남준 선생을 만

났다. 그의 전위적인 작업을 보고 비올라는 '나의 입을 만났다'는 직감이 왔다. 선생은 자상히 본인의 모든 작업을 지도해 주었고 2년 뒤 백남준의 개인 전 준비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74년 선보인 'TV-부처'와 'TV-정원'이다.

지난 35년간 건축적 비디오 설치·사운드 설치·전자 음악 퍼포먼스·광면 비디오·TV방송영상 등 다양한 빌 비올라는 '변형'을 선보인다. '물의 장막'

을 경계로 넘나드는 어둠과 밝음에 의한 실제의 생멸은 비디오의 속성인 '프레임(frame)'과 찰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물의 물리적 힘과 거꾸로 인간의 격양된 전 준비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74년 선보인 'TV-부처'와 'TV-정원'이다. 지난 35년간 건축적 비디오 설치·사운드 설치·전자 음악 퍼포먼스·광면 비디오·TV방송영상 등 다양한 빌 비올라는 '변형'을 선보인다. '물의 장막'을 경계로 넘나드는 어둠과 밝음에 의한 실제의 생멸은 비디오의 속성인 '프레임(frame)'과 찰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물의 물리적 힘과 거꾸로 인간의 격양된 전 준비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74년 선보인 'TV-부처'와 'TV-정원'이다. 지난 35년간 건축적 비디오 설치·사운드 설치·전자 음악 퍼포먼스·광면 비디오·TV방송영상 등 다양한 빌 비올라는 '변형'을 선보인다. '물의 장막'

기연속 기자 ornflower@daum.net

### 노영심 피아노 연주회 미항사 공연 CD 발매

판매 수익 서정분교에 기부

노영심이 연주한 5월의 피아노 '사랑이 사람에게 말을 거네'가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에서 공연 후 CD 음반으로 발매됐다. 판매수익은 미항사 아랫마을 서정분교 학생들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창건 1259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로 매년 5월 17일 인연 있는 곳에서 연주하는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회는 300여 명의 지역민과 탐방객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연과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정감어린 선율이 차담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

'자연·학교·마을'을 주제로 자하루(紫霞樓)에서 나는 10곡의 피아노 선율은 미항사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마련된 대화의 시간은 미항사가 붉은 노을에 잠들 때까지 계속됐다.

한편 천년 고찰 미항사는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기획·진행해왔다. 폐불제·산사음악회·한문학당·참선수행·참사람의 향기' 등 산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시대에 환원하고 있다. (061)533-3521

기연속 기자

### 방송인 김씨가 전하는 태교 UCC '감성동화'

방송인 김씨가 태교 UCC '감성동화' 성우로 나섰다. 태아 발달 시기를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하여 아름다운 사계절을 전한다.

제목에 걸맞게 일러스트와 내레이션·동화로 어울린 작품이다. 특히 더와이즈 황병원 전문의의 감수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태교법이다.

임신 21-24주차가 되면 뱃속의 아기는 엄마가 보고 느끼는 색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서정적인 수채화로 제작된 그림과 색상은 태아의 감수성과 상상력,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시각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영상에 접목해, 태아에게 사계절을 소리로 가르친다.

김씨가 전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은 다양한 색이 포함된 영상과 자연의 소리로 아이와 산모의 감성을 자극한다. (02) 539-9153

기연속 기자

##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속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 홈페이지 제작

-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 성장 카이로 프락터 양성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31세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근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 기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1급과정 (1개월)
-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 입학일시** • 2008년 7월 10일 (선착순 20명)

##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니를 찾는다

-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룬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 수강비가 수백만원 해아만 고급교육 일까요?
- 훌륭한 강사 입니까?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 개강일** 2008년 7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 교육기간** 주2회(총8회) 고급속성 과정
-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 교육비용** 50만원
-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 ◆특기 사항
  - 1.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교육 경비
  -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쉽함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